

“스마트공장,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선택 아닌 필수”

김수지의 답터뷰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이창근 본부장

“스마트팩토리는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닌, 현재 시점에서 산업계의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핵심 과제’입니다.”

올해 들어 본격 확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대부분 산업계를 침체시켰다. 하지만 외려 이로 인해 IT, 통신, 게임 등 일부 산업들은 더 주목받게 됐다. 코로나19에 따라 대면을 할 수 없게 되자 전 산업계에서도 ‘비대면(언택트)’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언택트로 대표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나선 기업들도 비교적 흔히 목격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난 수십 년간 기업들이 언택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이가 있다.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에 24년간 재직해 온 이창근 본부장이다.

1836년 설립된 슈나이더일렉트릭은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에너지관리 및 자동화 전문기업이다. 184년간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며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전 산업 분야의 에너지 관리와 공정 자동화를 지원한다.

이창근 본부장은 1996년 수배전반 관련 영업팀장으로 슈나이더일렉트릭에 입사했다. 이후 자동화 사업부를 포함해 약 15년간 영업 분야를 담당해왔으며, 품질 부서와 EOCR 연구소, 공장 운영 등을 경험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간으로 현재 그는 슈나이더일렉트릭의 익산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이창근 본부장.

24년 에너지관리·자동화 분야 잔뼈 굵은 ‘전문가’ 공장 커뮤니케이션, 문서에서 데이터통신으로 전환 서울 본사에서 익산 공장 원격으로 각종 관리 ‘언택트’ 직원 만족도 높아... 새로운 경험·커리어 발전 도움

스마트 팩토리 총괄 매니저를 맡고 있다. 현재의 익산공장은 ‘전자식 스마트 모터 보호계전기(EOCR)’를 생산하는 전통적 제조 생산 공장이었다.

하지만 2002년 슈나이더일렉트릭이 인수를 한 뒤, 공장 자동화 및 에너지 관리를 위한 통합 엔드 투 엔드(End-to-End) 솔루션 도입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했다. 이후 2013년부터는 선진화된 제조 프로세스로 혁신하고, EOCR R&D와 협업해 제품들을 새로운 라인업으로 구성했다.

전자식 스마트 모터 보호계전기(EOCR)는 모터에 유입되는 과전류로부터 모터를 과부하 혹은 단락에서 보호해주는 보호계전기다. 현재 익산 공장의 전신인 ‘삼화 EOCR’에서 1981년 세계 최

초로 개발했다. 전북 익산에 소재한 슈나이더일렉트릭 EOCR 공장에서는 전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세계 20여 개국으로 수출된다.

이창근 본부장은 “국내의 기업들이 글로벌화, 다수의 국가에 공장을 세우고 있다. 과거에는 공장에 문제가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 문서를 통해 커뮤니케이션해야 했지만, 이제는 모두 데이터통신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며 “익산 스마트 팩토리 사례만 봐도, 서울 본사 연구소에서 익산 공장의 각종 공장 관리 지수들을 모두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언택트’가 실현되는 셈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는 산업 관련 제반 활동의 많은 것을 바꿔놨다. 장기간의



전자식 스마트 모터 보호계전기(EOCR)를 생산하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익산 스마트팩토리 내부.

재택근무, 갑작스러운 섀다운, 물류 중단 등을 경험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격 관리가 가능한 산업 생태계에 대해 대비가 필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24년의 세월 동안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에서만 일해 온 그도 그간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 본부장은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 ‘직원 관리’를 새롭게 진행해야 하는 점이 어려웠다.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라며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데 직원들의 거부감이 있었으나, 지금은 매우 만족도가 높다. 직원들은 새로운 경험과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다양한 영업 활동 가운데 신제품 출시 후 국내시장에 최초로 제품을 공급 판매 했던 때를 회상하며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박·해양플랜트 수배전반 제조 전문 기업인 KTE(株)와 2003년에 맺은 기술 제휴는 1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 파트너로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항상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들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는 디지털 EOCR 제품에 대해 글로벌 출시를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다는 것은 품질 및 각종 국제 기술규격과 표준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며 “고객이 요구하는 규격과 성능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스마트팩토리를 기반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제품 생산라인을 혁신하며, 열악한 산업환경에 내구성을 보유한 우수 품질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본부장은 ‘모터’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전기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모터’ 없이는 살 수 없다. 이에 EOCR은 전기에너지가 존재할 때까지 계속 변화와 발전을 통해 혁신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산업 현장에 적합한 제품 개발을 통해 우수한 산업용 사물인터넷(IoT)을 적용하고, 예지 보전 기능과 성능을 강화해 친환경 지향의 그린 제품으로 재탄생 및 변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새로 나온 책

집단 패닉에 빠진 밀레니얼 엘리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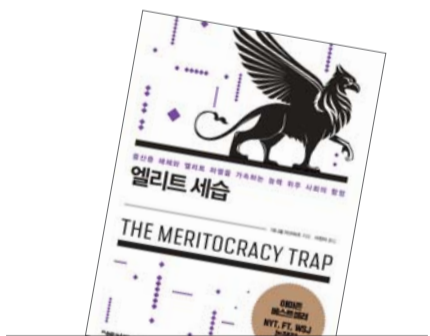
실력대로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능력주의가 현대판 귀족 사회, 즉 엘리트 신분제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귀족은 땅과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현대의 엘리트는 값비싼 교육을 통해 ‘인적 자본’으로 대물림된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높은 연봉의 직업을 쟁취한 엘리트들은 근면성이라는 도덕적 우월감마저 갖게 된다.

부자 부모는 자녀 교육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 ‘능력’을 키워낸다.

오늘날의 엘리트들은 인적 자본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유산을 상속한다. 중산층 이하에서는 따라 할 수 없는 전략이다. 하버드와 예일 대학에는 소득분포상 상위 1%에 속하는 가구 출신이 하위 50%보다 더 많이 재학하고 있다.

메리토크라시는 부와 특권의 집중과 세습을 대대손손 유지하는 숨은 메커니즘이자, 계층 간 원한과 분열을 불러일으키는 침묵의 트리거다.

이 새로운 귀족주의는 다음 세대에서 특권을 끊임없이 다시 구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무릅쓴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업적을 세워 스스로의 엘리트다움



엘리트 세습

대니얼 마코비츠 지음/서정아 옮김/세종서적

을 재정비해야 한다. 요람부터 지속되는 치열한 자기착취는 불행에 예비한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엘리트들은 과연 행복할까? 능력주의는 과거의 귀족과 달리 불안하고 정통성이 없는 엘리트들 무자비하고 일생 동안 이어지는 경쟁으로 끌어들이며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소득과 지위를 얻으라고 부추긴다. 밀레니얼 엘리트들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집단 패닉’ 상태다. 중산층의 빈곤화와 엘리트들의 자기파멸을 이끄는 능력주의의 함정을 예리하게 포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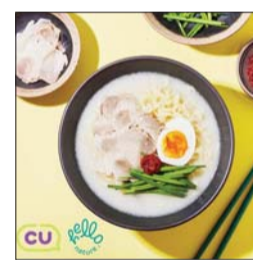
504쪽. 2만2000원. /김현정 기자 hjk10@

CU, 이경규의 ‘복돼지면’ 밀키트로 선보

CU가 그동안 점포에서 완제품으로만 만나볼 수 있었던 신상출시 펀스토랑의 우승 메뉴를 밀키트로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지난 방송에서 이경규는 부산 돼지국밥을 라면으로 재해석한 17대 우승 메뉴 ‘복돼지면(사진)’을 선보였다.

복돼지면은 밀키트와 간편식 완제품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 밀키트는 완성도 높은 요리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완제품은 조리도구 없이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즐기길 원하는 고객



을 겨냥해 기획됐다. ‘복돼지면 밀키트’는 끓는 물에 돈사골 베이스, 돼지고기 토픽 및 라면 사리를 넣고 강불에 3분 30초 끓인 뒤 부추, 반숙란 곁들여 만능향미유를 뿌리면 완성된다. 또한, 기호에 따라 다진 양념장을 추가하면 얼큰하고 칼칼한 국물맛을 즐길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투쿨포스쿨, ‘비건 브러쉬’ 8종 선보여

투쿨포스쿨이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아트클래스 아티스트 비건 브러쉬’ 8종(사진)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아트클래스 아티스트 비건 브러쉬는 한국비건인증원에서 100% 비건 인증을 획득한 인조모와 재활용 가능한 알루미늄 구관, 생분해 가능한 물푸레나무 핸들 등 친환경 소재만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고급 인조모를 사용해 세척 및 관리가 용이하며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민감한 피부도 자극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다. 또 사용 부위에 따라 디테일을 살린 라운드 커팅의 웨임으로 초보자도 섬세한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아티스트 비건 브러쉬 신제품은 페이스용 4종과 아이 메이크업용 4종까지 총 8종이다. /원은미 기자

아모레퍼시픽미술관 ‘고미술소장품 특별전’ 연장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이 고미술 소장품 특별전, ‘APMA, CHAPTER TWO’의 전시 기간을 올해 12월 27일까지로 연장한다.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은 지난 7월, 고미술 소장품 특별전 ‘APMA, CHAPTER TWO - FROM THE APMA COLLECTION’을 개최하고 50여 년 간 수집한 다양한 고미술품을 전시하고 있다. 일곱 개 전시실에서는 도자, 회화, 금속, 목공예 등 여러 분야의 작품 1500여 점을 관람할 수 있으며, 수월관음도(보물 제1426호), 감지금은니대방광불화엄경(보물 제1559호), 백자대호(보물 제1441호), 분청사기인화문사각편병(보물 제1450호) 등 국가지정문화재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그동안 유명인사를 비롯한 많은 관람객이 고미술 소장품 특별전을 찾았다.

이번 특별전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의 임시 휴관으로 약 두 달간 중단된 바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관람을 재개했으며 다양한 장르의 고미술 작품과 새로운 시각의 전시 연출을 통해 더 많은 관람객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전시 기간을 연장한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